

“대선 코앞... 공무원들 줄서기·복지부동 엄단”

전운철 감사원장 인터뷰 신항락 편집국장

감사원장 연임에 따라 12일 새로 취임식을 가진 전운철 감사원장(68)은 정부 내에서 ‘호남의 대부’로 불린다.

제19대 감사원장을 지낸 데 이어 또 다시 제20대 감사원장을 연임함으로써, 김영삼 정부 이후 4개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 정부직을 8차례나 지내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는 겸안하며 그 같은 평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기획예산처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감사원장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고향인 광주·전남에 보여줬던 유형·무형의 관심과 각별한 애정은 알만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전 감사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일보

‘직업이 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비결이 뭔가.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지난 42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 된다’는 원칙과 소신, 그리고 공직 외에는 한 눈 팔지 않는 철저한 프로정신을 지켜온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출신지역을 위해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연임이 됐고, 또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만큼 감사원장직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직생활에서 좌절을 맛 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운철 감사원장은

목표가 고향인 전 원장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1966년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말 차관급인 수산청장에 오른 뒤 1997년 3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해 김대중 정부로 바뀐 2000년 8월까지 재임했다. 그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11월 이후 감사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 감사원장으로서 정부 및 지자체의 규제완화 및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입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만큼 규제철폐 및 공직분위기 쇠신에 감사원이 중요한 역



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공기업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역사적 소명을 다한 공공기관은 민영화하거나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난 임기 동안 거둔 성과와, 새로운 임기 동안 주력할 점을 말해달라.

▲지난 임기중엔 시스템 감사제도를 도입, 종전까지 합법성 여부를 따져 온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감사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또 기

▲지역의 낙후를 오히려 전화위부의 기회로 삼는 지해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면 있는 것을 없애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예 백지장 상태가 더 낫다는 얘기가. 현재 광주·전남의 단체장들은 ‘레드오션’(Red Ocean-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빠져 있다.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려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는 ‘블루오션’(경쟁이 적은 분야)을 찾아내려는 노력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광

광주·전남 단체장들 ‘블루오션’ 발굴 나서야 무안공항 성패는 새 항공수요 창출에 달려

신항락 편집국장과의 대담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 기공식과 무안국제공항 개항식 참석차 이날 광주·전남을 방문한 전 원장은 인터뷰에서 42년간의 공직생활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로 ‘원칙과 소신, 그리고 철저한 프로정신’을 들었다.

그는 또 광주·전남의 발전이 아직까지도 타 지역에 뒤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며, 지금부터라도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을 발굴, 지역 발전모델 개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장 연임을 축하한다.

▲19대 감사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기 위한 퇴임연설 원고를 준비하다 연임발령을 받았다. 감사원장 연임은, 지난 임기 동안 도입한 시스템 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의 비효율과 낭비요소를 제거하려 노력한 점이 좋게 평가된 것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고 사정기구의 수장으로, 영광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차관급 이상 정부직을 잇달아 지내면서

▲실제로 승진 차별을 비롯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겪어야 했다. 특히 국장 승진 인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두 번씩이나 밀렸을 때, 그리고 1994년 당시 조달청장으로 내정돼 취임사까지 준비했다가 번복됐을 때는 너무나 괴로워 공직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다 보니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닌가 싶다.

—좌절에서 얻은 경험이 있다면.

▲차관급 정부직이 되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상당히 힘들게 된다.

—경제관료 출신으로서의 경험이 감사원장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됐는지.

▲감사원은 모든 정부부처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성격상 경제부처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실제로 이들 경제부처의 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감사원장으로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손쉽게 파악하고 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방만경영 공기업 민영화 과감한 정리 필요 ‘공직은 신의 소명’ 항상 원칙·소신에 충실

업무혁신센터를 개설하는 등 국민의 신문고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효율적인 감사원 운영을 위해 내부의 조직 및 인사혁신을 단행했다. 이번 임기중엔 시스템 감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정치권 줄서기에 나서거나 무사안일하게 민원을 처리하지 않도록 강도높은 감찰을 실시,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이 8일 개항했다.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개항 이후 얼마나 항공수요를 창출해내는가 하는 문제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항공사가 협력해 국제행사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항공수요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경제적 차별과 침체에서 벗어나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조인할 것이 있다면.

주와 전남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분야부터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떨쳐버려야 한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해야 한다. 또 공익성과 기업성을 기준으로 경쟁력 없는 공공분야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직생활을 하며 간직해 온 소신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공직은 신의 소명(召命)과 같다’는 신념 아래 지난 42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원칙에 충실하게 판단하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려 노력해왔다.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마지막 봉사의 자리라고 여기고 열과 성을 다해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역에서 유래한 ‘자강불식’(自強不辱·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힘써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이라는 고사성어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정리=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시오!

시원스기어

후금 대리점: 0621221-1700, 0621510-7851, 0629059-5800, 0622527-1575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무등산업

10021371-7095, 011-901-3701